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13-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성도는 세상(애굽)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본향인 하늘나라(가나안)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명확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
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
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When We Have Nothing Left to Give



Passage: Genesis 47:13-20 (ESV)

Date: July 26, 2026

Pastor: Dong Suk Chung

Core Theme: The famine in Egypt reflects our modern reality: material wealth, status, and human effort fail to provide ultimate fulfillment, leaving us desperately hungry for something real. When we surrender our possessions, our ambitions, and our lives to Christ, we move from spiritual famine into the abundant grace and peace of our good Shepherd, the true Bread of Life.

A terrible famine had spread across Egypt; there was no food anywhere. The people were desperate and gave the ruler of Egypt, Joseph, all their money in exchange for food. When the money ran out, they brought sheep and cattle to trade for grain. When they ran out of animals, they finally came back with nothing left but their own bodies and their land. "Buy us and our land for food," they said. "We will be Pharaoh's servants." Three times they gave up the things that they depended on, until they had nothing left to offer but themselves.

The famine our world is going through today isn't a lack of food or money; it's a spiritual famine, an absence of God's living Word. The world promises wealth, success, and knowledge if we try hard enough, but this traps people in an endless chase after things that can never truly satisfy us, leaving us desperately hungry for something real. We spend our money trying to find happiness, but it never lasts. We spend our whole lives working hard for something we think will finally make us content. Then we get it, and we still feel empty. We chase a goal for years, reach it, and realize it wasn't what we really needed. This happens to everyone who still believes the lie that they can save and take care of themselves.

That deception started in the garden, when the serpent told Adam and Eve that if they ate the fruit, they would become like God. Ever since then, people have tried to take God's place in our own lives. We act like it's all up to us to take care of ourselves and our loved ones. But no other creature God made lives this way. Only people, because we want to be our own god, carry the heavy burden of thinking we are responsible for saving ourselves.

But through the sufferings and trials we undergo, God crucifies that old self that tries to live as its own false god. The devil intends to use suffering to destroy us, but God uses that same suffering to break that false self

and the world's chains that hold us hostage. Suffering leads to true repentance and helps us to let go of the things we depend on and give our whole selves, time, and lives to God. When we stop trying to control our own lives, and instead believe that our old selves died with Jesus on the cross and now live as new creations in Him, we are set free from anxiety.

Joseph's story shows this same pattern. His years of suffering had stripped away everything that he once relied on and that became the path to becoming a ruler of Egypt who could save a starving world. In the same way, Jesus Christ suffer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o become our eternal Bread of Life. Every other bread, every material possession or achievement that we chase instead of Him, is bread that still leaves us hungry. Only Christ truly satisfies the spiritual hunger of humanity.

This is why the Egyptians' surrender in Genesis 47 matters so much. It isn't just about desperation. It shows us what it looks like to come to the end of ourselves. Only when the money is gone, when the things we lean on for security and comfort are gone, and we have nothing left but ourselves, do we finally reach out for the Bread that truly satisfies. That surrender is not loss: it is the doorway to receiving what money could never buy.

Psalms 22 takes us through this same path of suffering, describing the bones out of joint, strength dried up and garments divided: it is a prophecy of the desolation on the cross where Christ was forsaken by God. But when our old self dies on the cross with Christ and we are resurrected in new life with Him, only then does the confession of Psalm 23 become reality: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suffering on the cross gives way to the Shepherd who leads us beside still waters and restores our souls. This psalm belongs to every believer who understands what Jesus did for them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is our Life, our Bread, our Shepherd, our everything.

So think about what you are still clinging onto so tightly: your job security, your achievements, or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None of these things can truly feed your spirit. Surrender it all to the One who already gave everything for you, and receive the Bread that never runs out. This isn't giving up. It's the beginning of real life, the only life worth living. When we surrender—our possessions, ambitions, bodies and insistence that we control everything in our lives—to Jesus Christ, the true Bread of Life, we move from spiritual famine into the abundant grace and peace of our good Shepherd and trust that His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us all the days of our lives.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7장 13-20절

날짜: 7월 26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47장은 야곱 일가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날 형제들에게 생업을 물으면 '양치는 목자'라 답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에, 이 대답을 통해 가나안 국경과 가까운 고센 땅에 거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고센은 세상에 살면서도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영적 위치를 상징합니다.

참되게 거듭난 성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에 하늘의 말씀과 위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삶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자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진리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얹혀진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가짜 하나님'이 되어 살아온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마귀는 고난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세상 줄을 끊어내고 나를 부서뜨리십니다. 타락한 자아가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세상 임금 앞에

서도 담대히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겪는 기근은 물질의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산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지식은 인간을 한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할 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반면, 요셉이 기근의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총리가 된 것은 오직 고난을 거쳤기 때문이며,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듯, 성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적 총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삶과 피만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 돈을 바치고, 짐승을 가져오며, 마침내 자신들의 몸과 토지까지 요셉에게 바쳐 종이 된 과정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돈과 자산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지 않으면 이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소유와 존재 전체, 그리고 지체(눈, 귀, 입)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시편 22장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비참한 위치에서 성도는 자신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하던 근심에서 벗어

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어질 때, 비로소 시편 23장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 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선언이 실체가 됩니다.

2천 년 전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성령(공기)으로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땅의 대행자이자 생명을 전하는 중

인들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할 때, 영혼의 평안은 물론 육체의 질병과 삶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 자아와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토해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와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시편 22편 27-28절

주 간 소 식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교회 한글학교가 9월 13일부터 매주일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로비에 준비된 한글학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과 방명석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용 삼나소식이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로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org>
- information@nasungchurch.org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